

“내 목표는 세계랭킹 1위”

재미동포 다니엘 강 LPGA 투어 2주 연속 우승 지난주 랭킹 4위→2위... 상금은 56만달러 '1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재미동포 다니엘 강(미국)의 상승세가 매섭다.

다니엘 강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키호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매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마라톤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조디 이워트(잉글랜드)를 1타차로 따돌린 다니엘강은 일주일 전 드라이브 브론 챔피언십 제패에 이어 2주 연속 우승 기쁨을 누렸다.

LPGA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은 2017년 평산산(중국)이 토트 재팬 클래식과 블루베이 LPGA에서 내리 우승한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맨 먼저 2승 고지에 오른 다니엘 강은 25만5000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아 상금랭킹 1위(56만6000달러)로 올라섰다.

다니엘 강은 올해 출전한 LPGA 투어 4개 대회에서 2승을 포함해 3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조강세를 이어갔다. 세계랭킹 2위 다니엘강은 '필생의 목표'라는 세계랭킹 1위 자리에도 성큼 다가섰다.

리디아 고에 4타차 2위로 최종 라

운드에 나선 다니엘 강은 한때 5타차까지 벌어졌지만 1타차까지 추격한 끝에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리디아 고가 더블보기로 무너진 덕에 역전승을 거뒀다.

12번 홀까지 버디 4개를 뽑아냈지만 보기도 3개를 곁들인 다니엘 강은 6개홀을 남기고 5타차로 뒤져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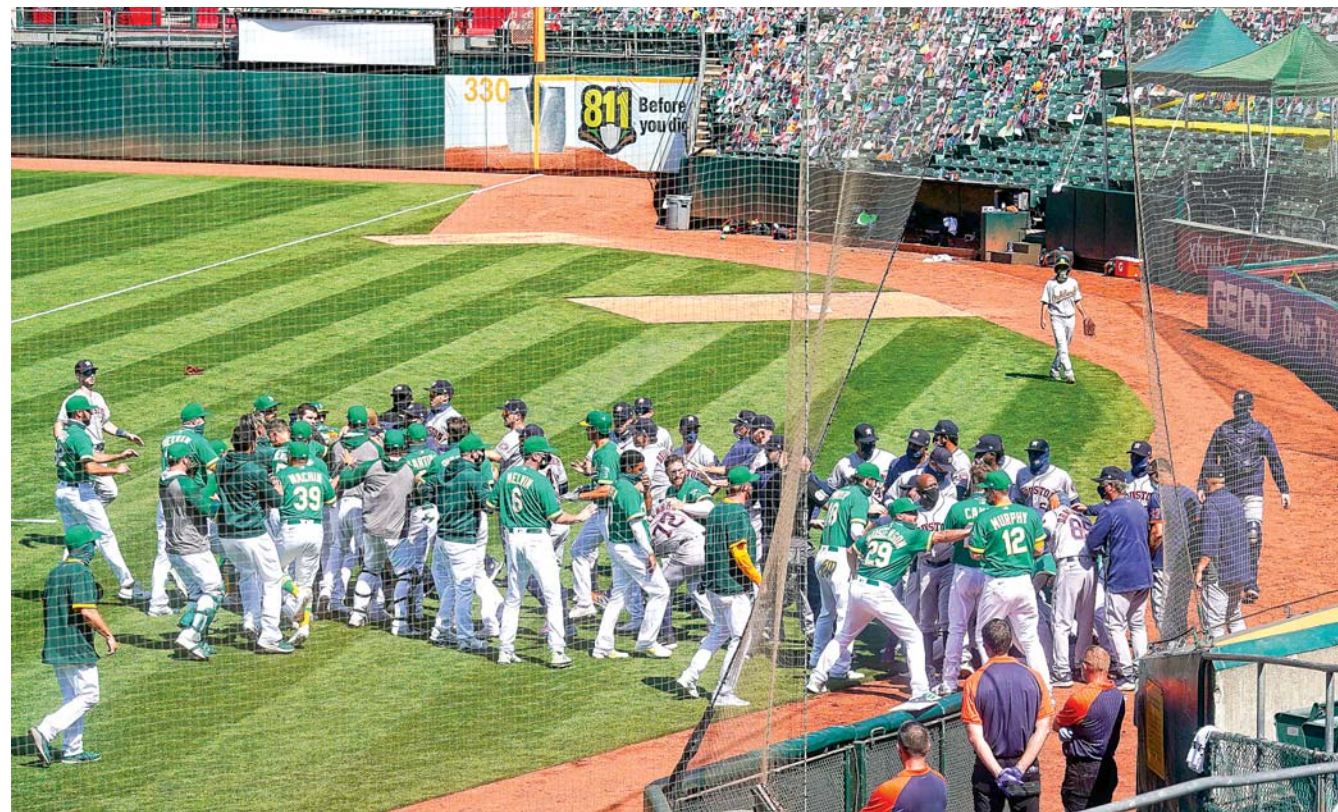


2주 연속 LPGA 우승으로 세계랭킹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다니엘 강. 연합뉴스

전은 어려워 보였다. 다니엘 강은 “캐디가 5타차지만 6개홀이 남았다고 알려진 게 내 투지를 일깨웠다. 매치플레이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종료후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니엘 강은 세계랭킹 1위에 강한 의욕을 내보냈다. 다니엘 강은 “세계랭킹 1위에 오른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벤치클리어링 벌이는 MLB 오클랜드·휴스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수들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경기 7회말 벤치클리어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14일부터 관중입장 확대 경기장 수용규모 25% 수준으로

프로축구 K리그가 14일부터 관중입장 인원을 경기장 수용 규모의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확대 지침에 따라 14일 열린 K리그 1 16라운드 성남FC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부터 입장하는 관중수를 최대 2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7일 프로스포츠 관중 입

장을 수용 인원의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프로연맹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단 25% 수준으로 받을 방침이다.

프로연맹은 “연맹과 각 구단이 좌석 배치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좌석 간 거리 두기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관중석의 25%까지만 개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했다. 경기장 내 좌석 간 거리 두기 방침인 ‘2좌석 또는 1m 이상 이격’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입장권 온라인 예매와 지정 좌석 운영제, 관중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응원 금지, 원정석 미운영 등의 지침도 유지된다.

5월 8일 개막한 K리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달 넘게 무관중으로 시즌을 치러왔다.

지난달 정부가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관중 입장을 허용하면서 지난 1일부터 유관중 경기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동안 가족 못 봐... 안쓰럽다”

MLB 세인트루이스 사장 김광현 위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존 모젤리아 사장은 올 시즌 많은 일을 겪고 있는 김광현(32·사진)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모젤리아 사장은 10일(한국시간) 현지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에서 팀 내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대해 답변을 이어가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선수들도 안타깝긴 마찬가지”라며 김광현의 이름을 꼭 집어 말했다.

그는 “김광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며 “미국은 한국처럼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밝혔다.

모젤리아 사장은 “김광현은 현재 6개월 동안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그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모젤리아 사장의 말처럼 세인트루이스는 창단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지난 1일 선수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9일까지 선수 9명과 직원 7명 등 총 16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10일 외야수 레인 토머스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이중 수명은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는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김광현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김광현은 12일 피츠버그전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해당 경기가 연기되면서 등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연합뉴스

류현진, 마이애미 돌풍 잠재울까

내일 홈 개막전... 연승 도전 마이애미전 통산 3승 1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사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도깨비팀’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연승 사냥에 나선다.

류현진은 12일 오전 7시37분(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살렘필드에서 열리는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와의 홈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다.

올 시즌 토론토가 대체 홈구장으로 택한 살렘필드 개장 경기에서 류현진이 첫 테이프를 끊는다.

메이저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



다에 연고지를 둔 토론토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캐나다 정부의 반대로 올해 홈구장인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토론토 구단은 미국 동부지역에서 대체 홈구장을 물색한 끝에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구장인 살렘필드

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지난 시즌 뒤 4년 8000만달러 계약을 맺고 토론토의 새로운 에이스가 된 류현진이 드디어 홈구장 마운드에 오른다.

류현진은 지난 6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시즌 3번째 선발 등판에서 토론토 이적 뒤 첫 승을 따냈다.

류현진은 좋은 기억이 있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마이애미는 그동안 류현진이 강세를 보인 구단이다. 류현진은 마이애미전에 통산 4차례 등판해 3승 1패 평균자책점 2.39를 기록했다.

하지만 류현진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마이애미와 올 시즌의 마이애미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마이애미는 올 시즌 7승 3패, 승률 7할로 내셔널 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질주하며 최

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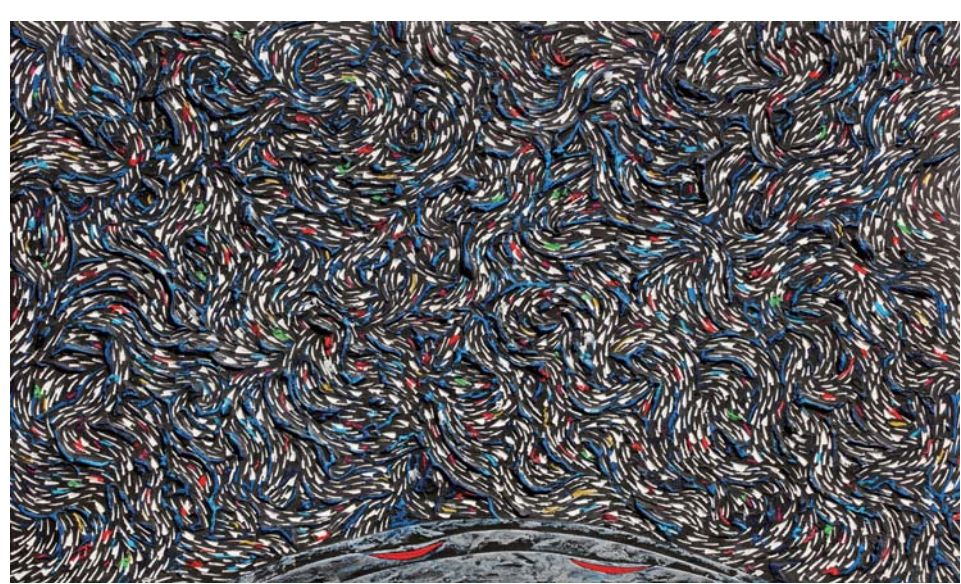
연합뉴스

부끄러움의 바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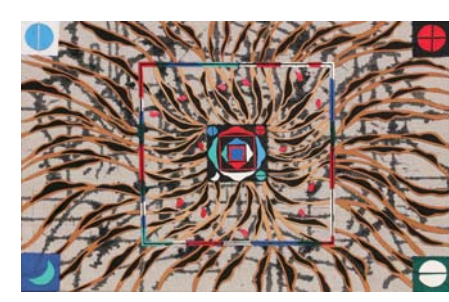
백광의 초대展

2020. 08.01 - 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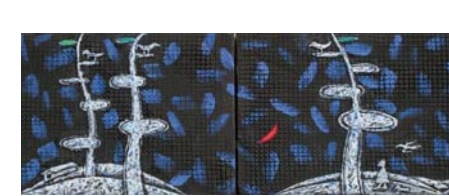
8월 1일 (토) 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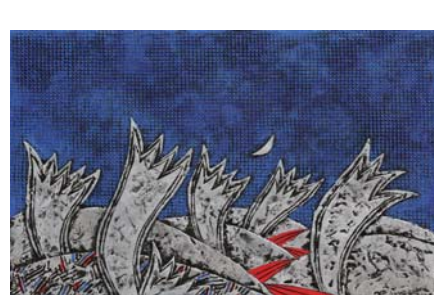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41x24cm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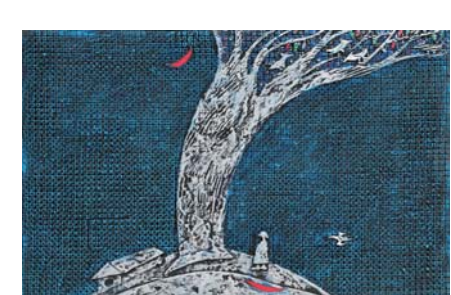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5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27x19x2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2cm | 2020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x43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45x27cm | 2020

관람시간 안내

| | | | | | |
|----|---------------------------|-----------|---------------------------|---------------|---------------------|
| 평일 | Open 11:00 Close 18:00 | 주말 (토, 일) | Open 11:00 Close 17:00 | · 휴관 : 매주 월요일 | · 문의 : 064-750-2543 |
|----|---------------------------|-----------|---------------------------|---------------|---------------------|

GalleryI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빌 1F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을 연 '갤러리IED'가 '제주, 제주 너머' 3인 초대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두 번째 전시로 백광의 작가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백광의 작가는 제주 토박이로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했고 현재 까지도 고향 제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추상미술 첫 세대의 작가입니다. 오름, 별, 바람 등의 소재를 추상화한 백광의 작가의 그림은 그동안 제주 미술의 정체성을 알려 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 깊숙이 잠들어 있는 감성과 영감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라일보는 '갤러리IED'를 통하여 제주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좋은 전시, 보고 싶은 전시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